'공공프로젝트'는 공공(公共)과 프로젝트의 합성어로, 여기서 공공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공공기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 구성원 전체에 관계되며, 그들이 참여해 장기간 완성해가는 대규모 사업이 곧 공공프로젝트인 것이다. 때문에 한 도시에서 시행되는 공공프로젝트는 그 시행에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논의와 마찰의 과정을 거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산물을 만들어낸다.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사업자와 전문가 및 시민들이 각각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은 이후 사업이나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사회 구성원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게 된다. 또 모두 적극적인 주체가 돼 공공프로젝트에 참여해 이후 관리·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속성을 담보해 낼 수도 있다.

자연친화·문화예술 살아 숨쉬는 도시로

1. 프롤로그
2.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 중요하다
3. 지속가능한 도시를 '디자인'하자
4. '공공프로젝트'가 미래 결정한다
5. 에필로그 - 전문가 좌담

행정관청만이 아닌 시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등 다양한 주체가 만들어 낸 공공프로젝트는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소재가 된다. 우여곡절 끝에 조성된 푸른길 공원은 공공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사례로, 광주가 친환경도시로 알려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러한 공공프로젝트의 효시가 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광주의 '푸른길공원'이다. 이는 광주시내를 통과하는 경전선 효천~광주 간 10.8㎞를 폐지하고, 그 공간을 공원화하는 시도로, 금싸라기 땅인 이곳을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을 때는 상당한 논란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 후대에 남겨줄 것은 '도심 내 녹지'라는 의견접근을 이룬 광주시와 시민단체 등이 힘을 합쳐 광주역~옛 남광주역~동성중 구간(7.9㎞)를 너비 8~15m의 선형(線型) 녹지공간으로 가꾸는 사업에 착수했다. 지난 2003년 1월 착공한 푸른길 공원은, 사업을 시작한 지 6년여 만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광주시민 모두에게 그 시너지 효과를 여실히 확인시켜주고 있다.

'도심 내 녹지의 제공'이라는 1차 목표 이외에 '예술 활동의 공간'이 되고, '창조의 공간'이 되며, 또 '건강의 공간'이 되고 있는 것이다.

폐선 부지에 조성한 푸른길 공원

예술·창조·건강의 공간 거듭나

亞문화수도도 광주 바꿀 시발점

오전은 물론 오후나 밤 시간대 이 선형 공원을 뛰거나 걷는 사람은 부지기수며, 이 공간을 활용해 조그만 장터를 열거나 공연을 펼치는 젊은 예술가들도 생겨났다.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돼 타일 1천80개로 남구 주월동 장산초등학교 부근에 환경벽화를 설치하거나 (사)광주푸른길가꾸기운동본부 주최로 공원 일대에 참나무나 때죽나무 1천700여그루를 심는 등 공원 조성으로 인해 파생된 사업들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공공기관인 남구청도 이곳에 발명장터를 여는 등 도심 내 소음이나 매연 주범인 경전선은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 '공공프로젝트'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가 올해 환경부 주최 '2009 환경대상' 시상식에서 저탄소 녹색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도 이 푸른길공원의 힘이 컸다.

공공프로젝트의 주요 소재가 '자연자원'과 '문화'라는 점에서, 푸른길공원이 '자연자원'을 활용했다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문화'를 활용한 공공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도청 별관 철거' 논란으로 한 때 소강상태를 보였지만, 지난 2004년 '문화'라는 가치에 먼저 눈을 뜨고, 이를 도시 경쟁력 향상과 결부시킨 것은 다른 국내도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혜안'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007년 작성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에 따르면, 광주에는 오는 2023년까지 국비 2조8천억원 등 모두 5조3천억원이 투자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및 운영,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기초예술 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 강화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문화'를 핵심키워드로 해 문화전당권, 아시아전승문화권, 시각미디어문화권, 문화경관 생태환경 보존권, 아시아신과학권, 교육문화권, 아시아문화교류권 등 광주를 7개 문화권으로 분류하고, 사실상 '도시 리빌딩(re-building)'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내 어디서도 시도된 적 없는, '환경'과 '문화'를 테마로 한 공공프로젝트를 통해 광주가 국내를 넘어서 세계 도시들과의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환경과 문화는 쾌적함(amenity)이라는 개념으로 해석되며, 이는 최근 도시재생이나 지속가능한 도시, 도시경쟁력 제고 등 도시를 둘러싼 각종 용어서 빠질 수 없는 명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문화에 의한 도시재생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프랑스 낭트시는 프랑스에서 가장 매력 있는 도시이며, 그 이유로 풍부한 녹지 공간과 예술문화의 역동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높은 삶의 질이 창조적인 일터와 연계돼 젊은 세대나 세계의 기업들이 낭트시로 향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환경과 문화는 언뜻 보면 경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요소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 두 명제는 향후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에 따라 시민들의 잠재능력을 이끌어내며, 그러면서 도시의 경쟁력은 물론 도시의 경제력도 한층 업그레이드시키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문가 제언

장상근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장〉

공공프로젝트는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며, 동시에 도시의 색깔을 바꾸기도 한다. 프랑스 파리는 1970년 퐁피두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오르세이 미술관, 라빌레트 공원, BNF도서관, 루브르 박물관 증축 등 13개의 공공프로젝트를 건립하는 '그랑 프로젝트(grands project)'를 시행한 바 있다.

일본의 구마모토는 지난 1988년부터 '구마모토 아트폴리스'를 통해 커뮤니티 센터, 박물관, 미술관, 학교 등 82건의 공공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무원이 주도하는 기존 공공사업 체계가 아닌, 일본 최고의 민간전문가를 '커미셔너'로 선임해 추진한 결과, 새로운 구마모트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는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을 목표로 양적인 팽창을 이뤄왔으며, 그 과정에서 성냥갑과 같은 아파트, 무의미한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은 당연했고, 또한 익숙한 것이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사회적, 문화적 여건이 성숙하면서 각 도시마다 독특한 도시색깔을 가져야만 그 도시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다.

도시의 독특한 색깔, 즉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도시의 이슈가 되며, 그것을 위해 규제나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광주색깔 바꿀 공공프로젝트 전문가 주도, 시민 참여 필수"

이 과정에서 획일성과 무미건조함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생각과 의식을 가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프로젝트는 도시의 색깔을 새롭게 입혀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는 그러한 공공프로젝트의 조건이 될 것이다.

첫째, 관 주도의 프로젝트에서 벗어나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일본의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정책이 성공한 원인은 바로 일본 최고의 전문가를 커미셔너로 영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광주시도 국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민간전문가들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구성, 공공건설사업 착공 전에 미리 이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있다.

둘째,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공공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파리의 그랑 프로젝트는 30년 전부터 시설물별로 건설됐음에도 13개의 공공프로젝트가 마치 하나인 것 같은 전체성을 품고 '도시 상품'으로 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배경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역 리더들의 강력한 리더십을 꼽고 있다. 광주시도 세계적으로 상품화가 가능한 개별 프로젝트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이러한 공공프로젝트는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사용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공공프로젝트는 도시의 색깔을 바꿀 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의 수준까지 향상시키는 계기가 된다. 광주시가 품격있는 도시환경을 갖고, 국제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행정기관만이 아니라 전문가, 시민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